

해피밀 시즌 6-2호를 발간하며,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께,

이번 시즌 6-2 해피밀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속의 여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고,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언약을 붙드시며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광야의 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여전히 막연한 광야의 상황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교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언약을 더욱 분명히 새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읽습니다.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달 해피밀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심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예수 그리스도의 중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창세기 1~4장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깜빡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
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
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생체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야가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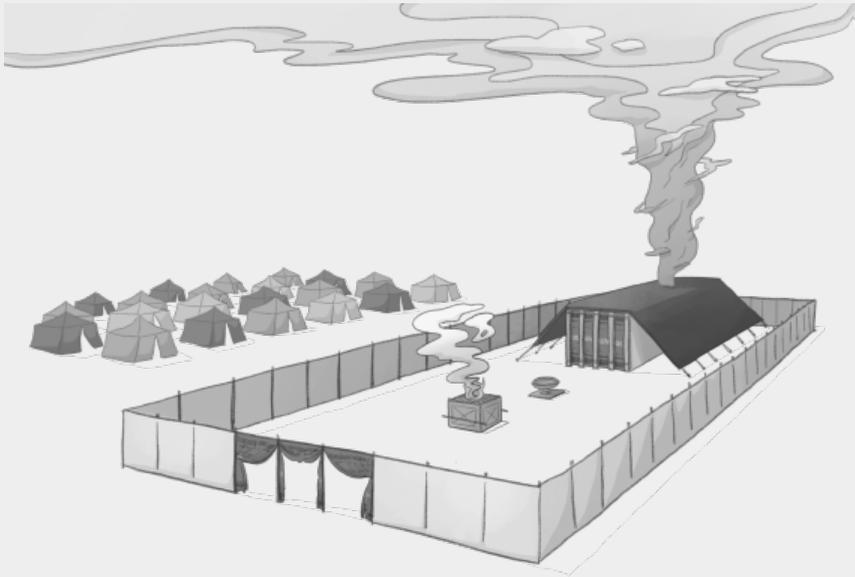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묵상질문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Leviticus 레위기



그리스도 중심으로 레위기 읽기



레위기 11~15장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레 14:1~9)

레위기 말씀에는 제사법 말고도 세세한 규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나누셨고(11장), 출산하고 나서 해야 할 일(12장)과 피부병이나 가정 위생(13장), 각종 유출병(15장)에 관한 규정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해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해져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14장).

오늘 본문은 나병환자가 나았을 경우 어떻게 다시 공동체에서 회복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규례를 보며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전히 강조되는 죄의 강력한 전염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환자가 과연 나았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환자를 꼼꼼히 진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부가 나은 것으로 판단된 뒤에도 그는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머리털을 밀고, 목욕재개를 해야 합니다. 혹여나 그의 몸에 남아있는 나균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그는 7일 동안 장막 밖에 있어야 했고, 그 7일이 지난 뒤에는 또 다시 모든 머리털을 밀고, 목욕을 한 뒤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여나 그가 가진 나균이 다른 이들을 전염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하고 철저한 방역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없도록 철저히 방역하고 또 방역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삼아 죄와 타협해선 안 됩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는 방역작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핑계삼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변명 뒤에서 죄를 합리화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노력과 의로 방역할 것이 아닌, 완벽하고도 철저한 방역을 해주시는 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마리의 새가 나타납니다. 한 마리의 새는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마리의 새는 그 죽임 당한 새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들에 놓여져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치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벽한 방역을 원하신다면, 자기의 의와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입어야 합니다. 그 분의 은혜와 복음의 공로, 거룩한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진정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 그 죄를 방역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16~20장

강직한 거룩(레 16:1~5)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무서운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다른 불을 드려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1절에 이 무시 무시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험한 분이십니다. 그 분의 거룩성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2-5절 말씀을 통해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 삼으셨다면,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쪼록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그 분 앞에서 살길 소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묵상하면, 참 놀랍고도 강직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한치도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 반드시 자신의 죄책을 대속할 제물을 받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타협하시는 분이시거나, 혹은 가끔 양보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만 눈 감아줄게"식으로 아론을 용납해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양보하지 않으시고, 강직히 자신의 성품을 고수해나가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그 분은 이 강직한 거룩성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 눈 감아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분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여 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은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 분은 거룩해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무결점의 완전 순수한 사랑의 본이였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때 우리를 구원한 뒤 자신의 이익을 한 톨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고도 순수히 사랑하심으로 그리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진짜 믿고, 마주하며, 느낀 사람은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사명은 명백합니다. 그건 '거룩'입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내 삶에서 얼마나 거룩을 염두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레위기 21~25장

안식의 패턴을 회복하라(레위기 23장)

지금까지 레위기는 외적인 부정을 정결케하는 정결법과 내적인 부정을 정결케하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은 그렇게 정결케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는 단순한 기념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과 연간스케줄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의 법칙을 따라, 첫째달 14일(7일*2)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은 무교절로 드려집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의 해당주 안식일 부터 7주가 지난 뒤, 하루를 더 채워 50일 째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나팔절은 7째 달 첫 째날에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절기는 7일이라는 안식일의 패턴을 기준삼아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은 초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안식일의 사이클에 따라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분의 세계에서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사회 시스템과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살아가며, 그 분의 패턴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를 하신 뒤 일곱째날 쉬신 것은 영광받기 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삽니다. 주일성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시간의 축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패턴에 대한 회복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나의 삶은 세상의 유행을 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안식일의 패턴이 꼭 7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7일 후 그 다음날, 혹은 7달 후 첫 째날과 같이 '+1'하여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죽으시고, 3일 후인 안식일 후 첫 째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의 패턴을 넘어 부활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권세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 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패턴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주일은 단순히 안식일의 패턴을 따르는 삶이 아닌,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매일 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요즘 내 삶의 패턴과 스케줄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2. 오늘 나는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가셨나요?





레위기 26-27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레 26)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26장 1절에는 선명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숭배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람의 자기중심성과 욕심이 가미되어있습니다. 죄인은 간사하게도 아무 말 못하고, 능력없는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 우상에게 자신의 요구, 바램, 목표를 자기중심적으로 주입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사실상, 어떤 실제존재하는 신적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악착같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이라고도 말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욕심은 자라서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가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언은 매우 논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하고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과 상의하시거나 논의하시거나 상황의 암담함에 제약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주권적 능력을 능히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분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우리의 삶에 벌을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상을 쉽게 만들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권한으로 친히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 되셔서, 친히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한 모든 권한을 쓰실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에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여겼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비하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뿌리를 십자가의 형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묵상질문

1. 내 안에 나의 욕심을 따라 만든 우상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을 통해 끊어진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Numbers 민수기



그리스도 중심으로 민수기 읽기



민수기 1-6장

광야에서(민 1)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은 한글 이름으로는 '민수기'라고 되어있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토라에서는 '베 미드바르'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고기를 먹고 싶다며 원망하였으며,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믿음 없음으로 원망하고 반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1절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회막은 '모일 회'를 쓰는데, 원어로는 '만남의 장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활한 광야 앞에 놓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 은밀히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광야처럼 척박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음으로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척박한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 앞에서 회막으로 들어간 모세를 주목해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인도할 수 있도록 이 회막에서 계속된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광야같은 인생길에 우리도 이러한 '회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회막'은 어떤 공간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성령의 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가지십시오. 모세가 광야의 그 무수한 사건들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님과 독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히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묵상질문

1. 현재 나의 삶의 광야길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까?
2. 하나님과 독대하며 매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독대(민수기 1장 1절)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예수님만을"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지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고 여깁니다. 광야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사막을 다녀본적은 없지만, 영화 몇 편에서 보는 것처럼 쓸만한 곳이 없어 쉽게 지치는 곳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지쳐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모세는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으로 부터 모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길에서 능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가정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 1. 요즘 어떤 일로 지쳐있으신가요?
- 2. 자신의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제목을 나누어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민수기 7~12장

하나님의 위로(민 11:15~18)

인생을 홀로 살아간다는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혼자 힘겨워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는 달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막막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계속 마주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였지만, 그도 인간이었기에 계속되는 어려움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현실에서의 결핍으로 인해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낳은 자들도 아닌데 왜 그들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지(12절), 혼자서는 그들을 인도할 수 없으니(14절), 은혜를 베푸셔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15절)"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모세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무게를 홀로 지고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힘겨워하는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70인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홀로 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눠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냄새까지도 싫어하게 될 때까지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60만 명을 어떻게 먹게 하시겠냐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23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통해, 만남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적당하게, 조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실리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위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위로받고 싶은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2.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3~18장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민 14:26~30)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허락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끊임없이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여전히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린 채,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합니다.(19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기반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죄를 품진 않으십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공의를 행하십니다. 함께하시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생명을 품고, 광야와 같은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버려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무엇인가요?
2.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공의를 받았나요?

나에게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19~24장

장대 위의 뉘뱀(민 21:6~9)

"매를 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하여 벌 받을 행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속담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다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많이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듯한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 흘리며 성화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합당한 처사라고 느껴지듯이 우리를 향한 심판도 피해 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으로 죽어가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뉘뱀을 달게 하시고, 그 뉘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뉘뱀을 통하여 이러한 나를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전히 소망 없고 변함 없는 광야와 같은 현실이지만 다시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마음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 안에 무뎠던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는 무엇인가요?
2.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자업자득이라 여겨질 만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25~30장

모든 육체의 생명되시는 하나님(민 27:15~20)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십니다. 새롭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두 번째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과 그들이 누리게 될 은혜들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모세는 그의 죄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모세는 이상하게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죽더라도 자신을 이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17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16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눈의 아들 이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권위까지 허락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선 안됩니다. 거저주신 인생,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은혜에 붙들리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목자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거저주신 인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31~36장

믿음과 현실(민 36:6~10)

우리는 본문을 통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규례와 율법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민수가 36장에서 뜬금없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심으로 그녀들이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을 지킴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 그 땅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땅을 넓히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오류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됨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섬기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기업을 지키고, 믿음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시대 속에서도 믿음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을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의 순간들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별됨을 요구하십니다. 시대를 따라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삶의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하는 사명과 믿음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2. 내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것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민 11:15-18)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최근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나요?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나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음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어려움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모세와 같이 솔직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가정되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최근 나의 힘들고 외로움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들어주세요!



Deuteronomy 신명기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명기 읽기



신명기 1~6장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4~5)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바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외에는 세부적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율법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경외심과 순종은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을 빼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헌신하지 않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복종이나 경외심은 껌데기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대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15에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종의 태도는 피차간에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기 위해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간과 재정의 쓰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잠깐의 유익과 성취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실 때 나의 이웃과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셨나요?
2.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풍성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7~12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신 8:16~18)

세상 사람들은 제물을 많이 얻으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것들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보면 물론 이들이 직접 밖으로 나가 손으로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나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만나를 열심히 거둔 자신의 노력만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짐승도 키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금과 은을 캐는 노력도 하며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이 제물을 얻을 여건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번성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공을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코 그것들을 자랑하거나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 기회를 풍부하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나누는 방식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부한 달란트와 제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섬기고, 이웃을 더욱 많이 돌보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재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들이 나에게 맡겨진 이유를 망각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하는 말씀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의 이유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하도록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 내게 넘쳐 흐르는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흘러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13~18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신 18:15~22)

모세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자신과 같은 예언자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설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주님만 의지한 이들을 주님께선 기뻐하사 이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셨으며, 이후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 된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들도 걸어갔습니다. 특정한 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그가 맺은 말에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심지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또한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웃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나누는 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세상이 깨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빛이셨으며 사망 가운데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더욱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19~24장

받지 말아야 할 이자(신 23:19-20)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근동 사회에서는 돈 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모든 물품에 이자를 받았습니.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율은 1년에 20~25퍼센트 정도의 이자를 받았으며, 곡식을 빌려줬을 때는 33.3~50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즉 이자율이 상당했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을 경우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지 말고 형제로부터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서 빌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며, 당장 자신과 가족이 먹을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이웃으로부터 빌리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빌리는 이웃에게 있어 이자는 그의 가난을 더욱 더 극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가 가난한 이의 사정을 배려하고 품어줌으로써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려해주시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선 요한복음 15:12에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선 우리가 빚진 1만 달란트에서 이자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빚 자체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배려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욕심으로 인해 간접적으로라도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2. 이웃의 아픔에 무뎠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 이웃이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25~29장

첫 번째(신 26:1-3)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 앞에 만물 즉, 첫 번째 것을 드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첫 열매, 첫 월급, 첫 직장, 이러한 말들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에 넘치게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때 거기에서 나는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거기서 나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일진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걷은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의 첫 번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한 번 드리고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며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니는 첫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내가 입사했던 날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곱씹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그다음 해에 똑같은 생일이 돌아오듯이 우리는 매 순간 첫 열매의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첫째, 만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 혹여나 껍데기만 남아 있고 의미를 잃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물이 아닌 예물 속에 담긴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온 맘과 정성으로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첫 열매의 감동과 감사를 아직도 간직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2.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대가를 바란 게 아니야(신 23:19~2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언가를 꾸어 줄 때 그에 따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굉장히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받게 된다면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자도 받지 말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대가를 바라고 선의를 베풀 적이 있나요?
2.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 수 있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들어주세요!



Passion Week 고난주간





마태복음 2장

환호를 짚어지다(마 21:9)

오해가 생기면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감정을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설명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풀리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억눌린 현실을 뒤집고 민족을 회복시켜 줄 정치적 구원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는 오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이나 마차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시 왕이라면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기대가 그 말씀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바라는 구원의 방식에 마음이 더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을 보면서도 여전히 강한 왕을 기대했고, 참된 의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가 기대하는 모습의 주님을 더 붙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은 단순히 외적인 억압에서의 해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보다 그 환호를 묵묵히 짚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과 왜곡된 기대까지도 품으신 채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무엇을 짚어지셨는지를 천천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의 오해와 기대, 연약함까지도 짚어지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2.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짚어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오해했던 적이 있나요?





요한복음 2장

함께 짚어지다(요 12:7)

누군가 내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 사실은 아무도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필요와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고 함께해 준다면, 그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위로일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지만, 그 길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주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 때로는 그 길을 말렸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환호할 뿐이었습니다. 환호는 있었지만, 이해는 없었고, 열광은 있었지만 공감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례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고, 그 고독한 길에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그 고난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온전히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알아가려는 마음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가까이 가는 것, 다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려는 것,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작더라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서툴러도 함께하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점점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멀어지기보다, 알아가기를 선택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고, 그 고난의 길에 조금이라도 함께 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질문

1.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공감해준 적이 있나요?
2.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한 적이 있나요? 그를 위해 어디까지 해보았나요?





마태복음 26장

고독을 짊어지다(마 26:40)

인간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빛을 나누고, 말을 주고받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독하고 버거운 일입니다. 어쩌면 요즘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더 몰두하는 이유도, 현실 속에서 느끼는 벽과 외로움을 잠시라도 잊고 싶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셨지만 깊은 고독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겐으로 환호가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 잠시 위로가 있었을 지라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고독을 마주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위해 겐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 겐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지경”이라 표현하실 만큼 깊은 고뇌 속에 계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잠들고 맙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마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조차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홀로 서 계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독 앞에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가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나아가신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고독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겐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 채워지려 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의 대상은 사람 이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연합할 때 비로소 참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고립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독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관계 맺기 위한 거룩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질문

1. 여러분의 고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2. 고독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마태복음 27장

수치를 짊어지다(마 27:29)

수치란 다른 사람을 볼 낫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감정도 바로 이 수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직후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의 낫을 피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단지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고통과 저주, 두려움과 수치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모든 부분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감당하고 싶은 만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고, 이 땅을 살아가며 저주의 흔적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수치와 조롱까지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 수치까지 감당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사랑하셨기에 모든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주님도 부끄러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피곤함을 아셨던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감정도 동일하게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부끄러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죄인을 향한 사랑이 수치를 넘어셨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조롱과 모욕의 자리까지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수치를 피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죄에서 비롯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또 다른 무화과나무 잎을 엮으며 자신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에, 우리 영혼이 감당해야 할 궁극적인 수치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히 나아갑시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닌 은혜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1. 여러분의 수치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2. 수치를 왜 참고 있나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27장

십자가를 짊어지다(요 19:30)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어나신 이유도, 사신 이유도, 죽으신 이유도 모두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내어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열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율법 앞에서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었고, 반쪽짜리 순종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늘 지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고, 그들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고, 평생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순종과는 차원이 다른 순종이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으로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그 값을 온전히 치를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드러지던 양과 염소는 잠시 죄를 덮는 모형일 뿐,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흠 없고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으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선포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십자가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직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진 그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질문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가요?
2.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짊어지다(요 19:16-3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십자가를 참으신"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의 예수님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성경은 왜 예수님의 처절함이나 고통, 절규를 담기보단 "다 이루었다"라는 짧은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우리의 평안을 더욱 아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감사하며 보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 1. 우리 가정은 어디를 목표로 살고 있나요?
-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